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5년 3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별표 참조

'한 · 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 투자 동향'

□ **한·미 FTA는 발효 이후 3년간**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對美 교역규모 증대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고 인하된 관세효과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
2. 한·미 FTA 활용 및 대응 사례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부서		담당 과장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박성훈 과장(044-203-4140)	조은교 사무관(044-203-4144)
	활용촉진과	손경윤 과장(044-203-4150)	김현정 사무관(044-203-4158)
	미주통상과	김정일 과장(044-203-5650)	윤정원 서기관(044-203-5651)
	투자유치과	주소령 과장(044-203-4080)	장민재 사무관(044-203-408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정현출 과장(044-201-1711)	이강석 사무관(044-201-172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전재우 과장(044-200-5420)	김명호 사무관(044-200-542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제영광 과장(042-481-3201)	정재호 사무관(042-481-32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조은교 사무관(☎ 044-203-41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첨 부 1

한 · 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 투자 동향

2015. 3. 13

관 계 부 처 합 동

차 례

Ⅰ. 한 · 미 FTA의 의의 ····· 1

Ⅱ. 한 · 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동향 ····· 2

Ⅲ. 한 · 미 FTA 발효 3년차 투자 동향 ····· 4

Ⅳ. 향후 계획 ····· 5

Ⅰ. 한 · 미 FTA의 의의

◇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과의 **안정적인 교역기반 확보**에 기여

○ '14년도 **한·미 FTA 수출활용률**(76.2%)은 타FTA 수출활용률(전체평균 69.0%)보다 높은 점을 감안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 **(거대시장 확보)** 미국은 **전세계 GDP의 22.5%**(17.4조불, '14.10월 IMF자료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2위 교역상대국**

* '14년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비중: 중국(21.4%), 미국(10.5%), EU(10.4%), 일본(7.8%)

○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수출상대국이자 4위 수입상대국

* '14년 주요 수출대상국: 중국(25.4%), 미국(12.3%), EU(9.0%), 일본(5.6%)
* '14년 주요 수입대상국: 중국(17.1%), EU(11.9%), 일본(10.2%), 미국(8.6%)

□ **(FTA 활용)** FTA 발효 3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6.2%**로, 旣발효 **FTA 전체 수출활용률**(69.0%)**보다 높은 편**

※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액 중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액 비중(추정치)

○ 한·미 FTA는 초기부터 타FTA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

< 우리나라 기업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 >

	발효 1년차 ('12)	발효 2년차 ('13)	발효 3년차 ('14)	전년대비 증감폭(%p)
전 체	69.4	77.0	76.2	△0.8
대기업	75.9	85.1	85.3	0.2
중소·중견기업	63.7	69.8	69.2	△0.6

자료: 관세청

Ⅱ.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동향

◇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14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對世界 교역규모 증가율**(2.1%)**을 상회**

○ '14년 **對美 수출**(13.3%)·**수입**(9.1%)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

○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차(20.2%)·무선통신기기(9.9%) 등 완성품 소비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

- 반면, 미국內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 석유제품(△12.6%)의 수출은 감소

□ **[교역규모]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14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수출 13.3%, 수입 9.1%)

○ '14년 **FTA 혜택품목**의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비혜택품목**은 **15.6% 증가**

<한·미 FTA 발효 전후 교역현황(단위: 억불, %) **>**

구분	발효 1년전 ('11)			발효 1년차 ('12)			발효 2년차 ('13)			발효 3년차 ('14)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對세계	5,552 (19.0)	5,244 (23.3)	10,796 (21.1)	5,479 (△1.3)	5,196 (△0.9)	10,675 (△1.1)	5,596 (2.1)	5,156 (△0.8)	10,752 (0.7)	5,727 (2.3)	5,255 (1.9)	10,982 (2.1)
對美	562 (12.8)	446 (10.3)	1,007 (11.7)	585 (4.1)	433 (△2.9)	1,018 (1.1)	621 (6.0)	415 (△4.2)	1,036 (1.7)	703 (13.3)	453 (9.1)	1,156 (11.6)
FTA 혜택	199	206	405	224 (12.8)	210 (1.9)	434 (7.2)	239 (6.4)	226 (6.9)	465 (7.1)	249 (4.3)	247 (9.0)	496 (6.7)
FTA 비혜택	363	239	602	361 (△0.6)	223 (△6.8)	584 (△3.0)	382 (5.8)	189 (△14.9)	571 (△2.2)	454 (19.0)	206 (9.1)	660 (15.6)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관세청

□ **[수출]** FTA 발효 3년차 혜택품목(4.3%)과 비혜택품목(19.0%)이 모두 증가하며, **對美 수출**은 전년대비 **13.3% 증가**

○ **(FTA혜택품목) 자동차부품**(7.2%)의 **수출**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2.6%)은 **미국內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수요감소**

○ **(FTA비혜택품목)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완성품 소비재인 **자동차**(20.2%)·**무선통신기기**(9.9%)등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

* 자동차는 '16년부터 관세철폐 대상이며, 무선통신기기는 FTA 체결 전부터 무관세로서 비혜택품목에 해당

< 對美 품목별 수출 (상위 5개 품목, 백만불, (%)는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11	(%)	'12	(%)	'13	(%)	'14	(%)	*혜택*
총계	56,208	12.8	58,525	4.1	62,052	6.0	70,285	13.3	
자동차	8,937	32.6	10,833	21.2	12,487	15.3	15,006	20.2	*비혜택*
무선통신기기	9,238	1.0	5,710	△38.2	7,555	32.3	8,300	9.9	*비혜택*
자동차부품	5,018	21.8	5,642	12.4	6,163	9.2	6,607	7.2	*혜택*
석유제품	2,588	△25.0	2,896	11.9	3,507	21.1	3,064	△12.6	*혜택*
반도체	2,726	△25.1	2,611	△4.2	2,912	11.5	2,886	△0.9	*비혜택*

자료: 무역협회(KITA), MTI 3단위

□ **[수입]** FTA 발효 3년차 **對美 수입**은 FTA 혜택품목(9.0%)과 비혜택품목(9.1%) 모두 고르게 증가하며 **전년대비 9.1% 증가**

○ **(FTA혜택품목)** 미국내 옥수수 작황의 회복과 함께 사료 등 **식물성 물질**(136.3%)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곡실류**(8.6%)의 **수입도 증가**

○ **(FTA 비혜택품목)** 미국 **반도체제조용 장비**(29.3%) 등의 **수입**이 **증가**

<對美 품목별 수입 (상위 5개 품목, 백만불, (%)는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11	(%)	'12	(%)	'13	(%)	'14	(%)	*혜택*
총계	44,569	10.3	43,341	△2.8	41,512	△4.2	45,283	9.1	
반도체	4,044	23.1	4,477	10.7	4,017	△10.3	3,991	△0.6	*비혜택*
반도체제조용장비	2,762	△23.7	2,711	△1.8	1,957	△27.8	2,531	29.3	*비혜택*
항공기및부품	2,857	△12.6	3,145	10.1	2,705	△14.0	1,967	△27.3	*비혜택*
식물성물질	2,154	2.0	1,821	△15.4	815	△55.3	1,926	136.3	*혜택*
곡실류	1,766	26.5	1,376	△22.1	1,537	11.7	1,670	8.6	*혜택*

자료: 무역협회(KITA), MTI 3단위

Ⅲ. 한 · 미 FTA 발효 3년차 투자 동향

◇ FTA 발효 3년차 **미국의 對韓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

○ 미국의 對韓투자는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

□ **[투자]** '14년 FTA 발효 3년차 **미국의 對韓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4% 증가**

○ '14년 투자액 기준으로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국내 총 FDI 유입액의 **19.0%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제2 투자유치국**임

* '14년도 국가별 對韓투자(신고금액) 현황: EU(65.0),미국(36.1),일본(24.9),싱가포르(16.7억불)

○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대비 △55.6%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27.6% 증가**

- **금속제조업**(916.2%), **화공**(433.5%) 등의 업종에서 **對美** 투자유치가 **증가**했으나, **섬유·직물**(△94.8%), **전기·전자**(△35.3%) **업종에선 감소**

- **비즈니스서비스**(253.9%) 등 서비스업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 유지

< 미국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발효 1년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11년	%	'12년	%	'13년	%	'14	%
투자규모		2,372	20.1	3,674	54.9	3,525	△4.1	3,609	2.4
산업별	제조업	1,092	174.6	1,804	65.2	1,187	△34.2	526	△55.6
	서비스업	1,275	△19.0	1,354	6.2	2,339	72.8	2,984	27.6
	기타	5	40.7	517	9,679.7	0.0	△100.0	99	98,624.8

Ⅲ. 향후 계획

◇ 미국 등과의 FTA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

□ **[기업의 FTA 활용]** 既추진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

○ **(FTA 활용률 제고)**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 및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률을 65%로 제고

* 중소·중견기업 FTA 수출 활용률 : ('14년末) 59.0% →('15년 목표) 65.0%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14년 11월에 개발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 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농수산 식품의 FTA활용 제고

* 주요 협회단체(농협, 수협)에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우선 보급, FTA 활용 지원 전문기관(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과 방문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新제품 개발 지원)** 주요 수출국별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기업 수요 발굴을 통해 신제품 R&D지원

* 원산지기준 관련 대응사례 (A 직물제조회사): 주생산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적용기준상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

□ **[투자유치 활성화]** 한중 FTA 타결 계기로 한·미 FTA와의 시너지를 활용한 **중국 진출 거점**으로서의 투자유치 활성화

○ **(유망분야 중심 유치활동 강화)** 석유화학, IT, 에너지, 바이오 등 미국의 對韓투자 유망분야 유치활동 집중 시행

○ **(양자채널)** 미국과 既구축된 **투자협력위원회** 등의 양자채널을 활용한 정부 간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

○ **(정보제공 강화) 외국인투자 포탈 구축·운영**을 통해 투자관련 FTA 내용, 국가 R&D사업 등의 정보를 잠재 투자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15.10월, KOTRA IK사이트 확대개편)

참고 1 對美 **농수산물 교역 동향**

◇ 발효 3년차 **對美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8.2%**, **수입**은 **30.2% 증가**

□ **[수출]** 발효 3년차('14년) **對美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8.2% 증가**

○ **(분야별) 농산물**(전년대비 12.0%), **축산물**(3.2%), **임산물**(19.0%)의 수출이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

○ **(품목별) 혼합조제식료품**(25.1%), **권련**(19.1%), **소스류**(18.9%),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14.8% 증가**

□ **[수입]** 발효 3년차 **對美 농수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30.2% 증가**

○ **(분야별) 농산물**(39.9%), **축산물**(27.7%), **수산물**(7.2%)의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

- 농산물 수입증가는 '13년도에 악화된 미국의 작황부진이 '14년도에 회복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됨

○ **(품목별) 쇠고기**(32.3%)·**돼지고기**(28.7%) 등의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오렌지는** 전년대비 **감소**(△25.6%)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농식품 수입 동향 >

(단위: 백만불, %)

구분	발효 1년전 ('11)		발효 1년차 ('12)		발효 2년차 ('13)		발효 3년차 ('14)		전년대비 증감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농산물	395	5,260	430	4,411	464	3,637	520	5,089	12.0	39.9
- 곡물	10	3,240	9	2,375	10	1,442	9	2,760	△7.6	91.4
- 과일·채소	60	440	67	593	74	616	74	610	0.4	△0.9
- 가공식품	326	1,579	353	1,443	381	1,580	437	1,719	14.8	8.8
▪ 축산물	21	1,717	27	1,411	35	1,471	36	1,878	3.2	27.7
▪ 임산물	15	893	16	793	23	853	28	843	19.0	△1.1
▪ 수산물	181	155	191	177	218	221	217	237	△0.2	7.2
전체	612	8,025	664	6,792	740	6,182	801	8,047	8.2	30.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도자료
첨 부 2

한·미 FTA 활용 및 대응 사례

2015. 3. 13

산업통상자원부

사례1 "Made in KOREA" 인정을 위해 국내로 생산기지 이전

글로벌 브랜드 신발 OEM 납품업체 (R社)

○ 글로벌 브랜드 신발회사로 납품하는 신발 제조업체 R社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2011년 2분기부터 중국 생산공장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음

- 국내 생산은 기존의 중국 생산에 비해 인건비 등 약 8~10%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지만, 국내 본사에서 직접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Made in KOREA" 제품의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

- 특히 R社가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FTA를 통해 관세(8%) 즉시 철폐 대상이 되면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내로의 생산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현재 미국 뿐 아니라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의류제품 생산업체 (J社)

○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DKNY, 빅토리아시크릿 등)에 납품하는 J사는 국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 공정에서 의류를 생산하였으나, 고가 의류 제품을 위주로 국내 생산을 전환

- 한미 FTA로 미국 수입관세율이 6.0~14.9%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일부 스웨터의 경우에는 32%의 고관세가 철폐되면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을 결정함

- J사의 생산비용은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국내 생산에 비해 20~40% 저렴하여 원가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국내 생산이 불리할 수 있으나,

- 직접적인 특혜 관세 혜택을 받는 미국 측 바이어가 FTA 적용을 요구하여, 관세 혜택이 높고 고가인 제품을 우선하여 국내 생산라인으로 전환

○ 미국 바이어와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문량 증가가 기대됨

사례2 경쟁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이 가격경쟁력의 날개를 달아 승부

수제젤리와 초콜릿 생산업체 (D社)

○ D사는 고품질의 수제젤리와 초콜릿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해외 진출 의지가 높음

- 비교적 고품질의 일본 상품, 저가의 중국 상품과 경쟁하면서 해외 주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FTA로 인한 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고급 초콜릿의 본고장인 EU에 진출한 후, 미국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미국 내 유명 유통 체인에도 입점하였음

- 해외 판로개척으로 매출이 50%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D사의 대표는 FTA를 활용하여 30여개국 수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 중

휴대폰 전자파 차단 테이프 (L社)

○ 휴대폰 전자파 차단에 쓰이는 테이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L社는 미국 유통업자를 통해 휴대폰 제조기업(애플社)로 납품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수입관세 3.8%가 한미 FTA로 즉시 철폐되면서, 기존의 미국산이나 일본산 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한국산 제품 주문량이 증가

- 중국에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여, 휴대폰 제조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한미 FTA 발효전인 2011년부터 수출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FTA 발효 후 수출량이 450% 정도 증가

사례3 한미 FTA의 숨겨진 혜택을 활용

유아용 손발모형 액자 (U社)

○ 유아용 손발모형을 석고 등으로 제작하여 액자를 구성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U社는 해외시장으로의 제품 수출을 모색

- 미국 측 바이어가 거래에 관심을 보였으나, 제품 단가를 더 인하할 것을 요청하여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미국 시장을 진입해야 하는지 고심

- 한미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였으나, U社의 기본세율은 이미 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바이어에게 제시하기는 곤란

- 그러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PF)가 한미 FTA 협정으로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함

* 2천달러 이상 물품은 수입가격의 0.21%, 2천달러 이하에는 자동신고 $2, 수동신고(개인) 6%, 수동신고(세관) 9%

○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바이어에게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

사례4 농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K社)

○ K社는 매년 1~2월 감귤 생산철이 되면, 낙과와 흠집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진 감귤이 넘쳐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감귤을 착즙하여 비타민 정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착수하였음

-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제조업자가 포화상태로 매출이 부진하자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과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에 성공함

○ 2012년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바이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미국 시장 진출에도 성공

- 미국 관세율은 10.4%에서 5년간 철폐되고 있으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2016년부터는 FTA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사례5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양돈 생산성 향상 (H농장)

○ H농장은 2011년 한·미 FTA대책 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돈사 신축

- 커튼형의 낙후된 돈사를 무창돈사로 교체하고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쿨링패드 설치, 환기·급이기 등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자동화 시스템은 중앙 컴퓨터를 통해 축사내 온·습도의 실시간 조절과 사료섭취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효율성 증대

○ 시설현대화사업 설치이후 모돈당 연간 출하자돈수(MSY)가 20.3두에서 23.8두로 증가(전국평균 18.6두), 이유전 폐사율은 13.5%에서 4.8%로 감소, 사료요구율은 3.4%에서 2.9%로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

원예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규모화·전문화 (T 농업회사법인)

○ T 농업회사법인은 시·군의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 운영주체로서 2007년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민·관이 합동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 산지 생산·유통 주체들을 조직화하여 원예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

○ 한·미 FTA대책 사업인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및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을 지원받아 관내 농업주체들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디자인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매출 향상

- 역할분담: (농협) 생산관리와 원물 수집,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 (유통법인) 상품화 및 마케팅 전담

○ 2013년 매출 654억원 달성, 2012~2014년 3년 연속 산지유통종합평가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